

미래 신산업 이끌 산·학·연·관 거버넌스 출범

전주시, '전략산업 육성 실무위원회' 발대식 개최... 전북지역 연구기관·대학·기업들과 협업체계 구축

전주시는 14일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대회의실에서 김인태 전주 부시장과 전북지역 산업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 26개 기관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산업 육성 실무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전략산업 육성 실무위원회는 시가 전북지역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과 함께 대내외 산업경제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대형과제 발굴 및 경제산업 분야의 정책 제안 등 중장기적인 산업경제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결성된 산·학·연·관 거버넌스이다.

시는 도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소재·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기관장 중심의 '전략지문회의'와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14일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대회의실에서 김인태 전주 부시장과 전북지역 산업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 26개 기관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산업 육성 실무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는 분야별 기획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도출을 위한 전문

가 정책 포럼 등을 개최한다. 또한 대규모 연구·개발 국가사업과 경제산업 정책 제안,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전략산업 육성 실무위원회 운영을 토대로 지역산업의 성장경로를 찾고, 기존 집중 육성해온 산업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수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들과 함께 산·학·연·관 협업체계가 구축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한 경제 전주를 꼭 이뤄낼 것이다.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시민들을 먹여 살린 산업경제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전주와 전북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14일 시장실에서 정병에 미국 샌디에이고 자매도시협회장을 만나 양 도시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시와 교류 강화

샌디에이고 자매도시협회장, 전주 방문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패 전달

전주시가 40년 동안 자매도시의 연을 이어온 미국 샌디에이고시와 국제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4일 전주시장실에서 정병에 미국 샌디에이고 자매도시협회장을 만나 양 도시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토드 글로벌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의 요청으로 전주-샌디에이고 간 40주년 기념 서한과 기념패를 전달하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미국 샌디에이고시는 지난 1983년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청소년 분야와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교류를 이어왔다.

미국 샌디에이고시는 지난 11월 1일을 양 도시간 자매협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해 '전주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토드 글로벌리아 샌디에이고 시장

은 전주의 날 선포와 관련 "샌디에이고 사람들에게 전주는 매우 특별한 도시"라며 "40주년을 맞이해 양 도시가 우호 협력, 산업,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올해 전주시와 샌디에이고가 교류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양 도시의 협력이 더 내실 있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민간교류 등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83년 미국 샌디에이고를 시작으로 중국 쑤저우, 일본 가나자와, 튀르키예 안탈리아 등과 자매교류를 맺고, 도시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 및 민간교류 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와 미국 뉴올리언스 등 세계의 우수 도시들과 우호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다양한 도서관 문화 정책 '주목'

전주책채·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등 도서 문화 활성화 기여

전주시는 올해 전주독서대전 등 3대 책 문화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동네서점 활성화와 시민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등 다양한 도서관 정책을 펼쳐 왔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어진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는 이수지 작가와 막스 뮌호스 작가,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 등 세계 최고 작가들의 그림책 원화가 전시되고, 그림책 관련 강연과 체험, 북 마켓 등

이 운영돼 약 3만4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또한,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전주독립출판박람회 '2023 전주책페'의 경우 독립출판물과 아트북 작가의 신작이 홍보·판매돼 서울과 부산, 광주, 구미 등 독립출판물에 관심 있는 전국 각지의 관람객이 몰려오기도 했다.

여기에 6회째를 맞은 '전주독서대전'은 총 118개 프로그램에 약 4만7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책'을 주제로 시민과 교육계, 언론계, 동네서점, 작가, 출

판사 등 모든 독서생태계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동시에 시는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 20'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

현재 전주시민 약 2만2000명이 가입하고, 47개 지역서점이 참여 중인 '책콩20'은 올해 장애인 대상 무료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도 도입해 소외계층에게 폭넓은 독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도서관 여행'에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올 한해 1600여 명의

여행객이 참여하며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전주의 이색 도서관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전주의 관광자원과 결합한 1박 2일 일정의 '전주도서관 체험형 연수프로그램'에도 전주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 사업 전반을 배우려는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기관, 도서관 관계자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책 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도서 문화가 촘촘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모든 세대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책문화산업이 전주의 인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주시의회가 15일, 올해 마지막 회기를 연다.

1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15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개최를 알리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집행부 행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행정특위는 위원장 김운철,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을 중심으로 최주만, 최용철, 채영병, 신유정, 김정영, 이보순, 장재희, 최지

은, 이성국, 장병익, 이국, 천서영 의원 등 14명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꾸려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8기 2년차의 전주시장 공약 이행률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운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감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제정도 이뤄질 수



사진은 전주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장 질문이 이어지고, 같은 달 7일부터 15일까지는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

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형배 의원과 부위원장에 최서연 의원을 중심으로 김원주, 김세혁, 남관우, 최명권, 김학송, 한승우, 박해숙, 윤해정, 전운미, 김현덕, 양영환, 최명철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형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시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현실감 있게 반영하면서 형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감시하고 심사할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 효율적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휴비스 전주공장, '엄마의 밥상' 위한 성금 1000만원 기부

(주)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고성욱)이 9년째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와 휴비스 전주공장은 14일 전주시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고성욱 공장장, 유병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휴비스 전주공장은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침밥을 전달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로 9년째 매년 상·하반기 각각 전주시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사업에 각각 1000만 원씩 연간 2000만 원의 성금을 후원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희망을 전달해왔으며, 누적 후원금만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날 기부된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옥기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